

2016년 10월 21일, 구좌읍 세화리 부신남씨 덕, 송정희 조사.  
부신남(여, 1920년생, 구좌읍 세화리)

**[제보자]** 저 덩기당 보난에 산에 업더져서 선제로 영 부깸어렌, 산을 산을 선제로 부깸이 난에 이젠.

**[제보자 딸]** 풀 몰르렌.

**[제보자]** 그 옛날 대각이 막 그, 그 사름도 놀게 돈곡, 대각이 어떻 행 막 놀아댕기는 사름, 뭐 요 사름은 아무날 죽나 허민 죽곡 허는 사름이라낫젠. 경 헌디, 분첼 선제로 산에 업더전 영 영 부깸이난, 그 사름이 넘어가단  
“이거 무시거 험디?”

허난 지네 서방 산 때

“나 죽건, 산에 풀이나 몰르건 서방 얻엉.”

가렌 헤렌 아이고 경 허난, 그 이젠 그 사름은 장수엔 허는 사름은 그 확허난 몰라 벗어. 몰류난, 그 선제 뭐 줄 건 엇이난. 그 여잔 확 몰려주난 이젠 선젤 게와러레 찔러렌

“말덴, 말덴, 나 뭐 돈 이런 거 받젠 거 헛이나. 나가 헤지는 기술이난 몰를 거렌라.” 경, 집이 집이 오난 이젠, 여잔 이 저 선제 게와에 잇이난

“아 이거 무신 저을에 이제 무신 여름도 안 혀난디 선젤 게와에 낫.”

영 오구룩허는 거 경 허난, 저 어떤 여자가 산에 업더전 막 풀을 몰류왔이나네.

“에 이거 무시 거헛이난에?”

“우리 남편 산 때, 이 산에 풀이나 몰류건 남편 정행 가렌 헤 부난 이거 제게 몰류렌 몰류누렌.”

허난 아이고 그 예펜허는 말은, 각시허는 말은

“그거 몰를 셀 못 춤아그네 경 헛이네. 그거 몰를 셀 못 춤앙 서방 얻엉 가젠 그걸 선제 앗앙 강 몰랐이넨.”

그 여잔 경 허난, 이젠, 그 남잔 이젠 그 풀을 제게 몰라준 그 장순, 셈을 받아보젠 막 잘사는 사름이 경 허난 이젠 저

“나 죽거들라그네, 난 아무날 죽을 거메 죽거들랑, 혼 둘만 이젠 성복헤여동 입관헤여그네 그 속에 낵도, 우이랑 덩으지 말곡.”

이젠 호갠덜 하간 데서 오곡 헤여. 헤여도 이불만 덩영 낵, 삼시 밥을 해당 상

식을 행 하렌. 그 남제가 경 곶양, 경허난 이젠, 삼시 이젠 죽었네. 성 성 성복행 일포행 이젠, 저, 그 관 차네, 관에 놓안 우인 아이 덩으곡 이불만 덩어네. 이불 덩어네 이젠 놓안, 놋둡어로 이젠, 막 공연허곡 헤연, 혼 둘이 지나가고 이젠 죽 어난 이젠 묻진 안 혀도, 경 행 혼 둘 혼 둘 넘건 묻으렌 허난 이젠 귀양낼 거 아니라, 귀양내젠 허난

“아이구, 무신 올라다 봐민 능화도비 놀려다 보민 갑진장판, 어느 누가 금산비 단 한 이불에 저 저 이불은 누계가 덩으고?”

허난 심방이

“내가 덩으지.” 영허고

“아이고 저 저 양복덜은 누계가 다 입을 건고?”

“나가 입지.”

영 허멍 헤엇젠 이제 굿허는 사름은 경 행 귀양내고 다 헤연 이젠 그 심방허 곡 그 여잔 살아변, 살멍 구들에 한 편쪽에 이불 덩언 누나네게 바례기 실으난 영 헌 창고 닳은 디 그 영장은 들어당 놋비젠, 들어다 놋네 이젠, 밥은 삼시 들 언 걸어놔, 걸어놋난 먹언 먹으난 살앗지게 혼 둘을, 혼 둘은 뒤편가난 이젠, 혼 둘 넘건 묻으렌 허난, 날 뵈 묻젠 허난네 이젠, 그 죽은 사름이 이젠 우인 덩으 지 안 헛지. 아이 덩언 이불만 덩언 놓고 삼시 밥을 헤다 놓안, 내랑 삼시 술도 잔에 비와 놓고, 물도 다 헤다 놓고, 승냥 물도 걸어가곡, 경 행 묻젠 허난, 그 사름이 살안 일어나변, 묶으지 말렌 헤난 묶으도 안 혀네 그냥 그자 경 이불 끌 고 덩으곡 헐, 헛간에 놋도 뜻이게 헛젠, 게난 그 사름은 그 산에 풀이라도 몰류 와그네, 서방 얻어가렌 그걸 못 춤앗젠 각신 허난네

“아이고 미친 년이 다 싹젠.” 허멍

그 사름신디에 막 욱헤연. 진 구들에 묻지도 안 현 때 이젠 얻어젠, 얻어그네 살멍 이젠 삼식을 데령허곡.

**[제보자 딸]** 말장시 말.

**[제보자]** “너넨은 나 묻지도 안 혀그네, 혼 착 구들에 놋둡어로 서방이영 서방 얻영 사는 년이.”

그 사름?라 욱헛젠 헤엇젠 그 말 들은 거 잊어버지지 안혀.

**[조사자]** 선제가 뭐파? 선제? 부채? 풍채렌도 허곡 선제렌도 헤마씨?

**[제보자 딸]** 선제. 선제.

**[조사자]** 선제.

**[제보자]** 선제. 영 부끄는 걸로, 영 부꺼그네 불도 일어나곡 여름에 더우민 영 영 게여지 는 거. 그런 선제.

**[조사자]** 아. 영 탁 접어지는 걸 부채 그런 부채를 선제렌.

[제보자] 그걸 영 폐와네 그 산을 몰랐어런 풀을, 풀을 몰리난 이젠.  
 [조사자] 옛날엔 그 선제가 귀헛우과?  
 [제보자] 어?  
 [조사자] 귀헛? 막 비싼 거?  
 [제보자] 그런 것이 귀허지게. 아, 경 헛, 영 게여네 게와더레 찢러렌. 찢르난  
 “아이고 필요엇수다. 가정 갑서.” 헛도  
 “이거 너무 고마완, 이거 앓안 갑서.” 헛. 게난 앓아 오란.  
 [조사자] 그 남자가 대각이파? 대각?  
 [제보자] 어?  
 [조사자] 대각이? 그 남자가 대각? 부대각?  
 [제보자] 남즈가.  
 [조사자] 부대각은 아니고?  
 [제보자] 부대각은 아니고. 아니고, 것도 옛날 막 놀게 돈곡 어평헌 놀아댕기는.  
 [조사자] 놀아댕기는 장수과?  
 [제보자] 영 저낙이 혼 시간이민 저 오름에 강 돌앙 오곡.  
 [조사자] 허는 남즈엇수과?  
 [제보자] 응.  
 [조사자] 응. 막 날아다는 남자구나.  
 [제보자] 그 여즈도 이제 어느 날 죽을 거 다 알안, 남자가 나 죽어그네, 혼 둘을 살아도  
 여제 어평 안 헛 걸로 헛, 혼 둘 넘건 묻으렌 허난 혼 둘 이젠 구들에 놓앗다네  
 이젠, 봐레기 실르난, 지네 두갯이 막.  
 [조사자] 게난 심방이랑 게난 심방이랑 살아불언?  
 [제보자] 심방이 이제 막.  
 [조사자] 막 재미지다에. 막 재미진 얘기.  
 [제보자] 금단도비 작베기에 금산이불 한 이불을 누게가 덕을 건고.  
 [조사자] 나가 덮지.  
 [제보자] 내가 덮으지.  
 [조사자] 저 좋은 양복은.  
 [제보자] 저 세베레 양복을 누가 입을 건고.  
 [조사자] 나가 입지.  
 [제보자] (웃음)

• 핵심어 : 과부, 심방, 부채, 선제, 무덤